ECONOMY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늦은 추석 덕에 차례상 4년만에 20만원대로

4인 기준 전통시장 장보기 비용 '29만9000원'
사과·배 가격 하락에 무·배추 등 출하량 안정

추석 차례상차림 비용이 4년 만에 2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폭우와 폭염 등 악천후로 추석 물가가 치솟지 않을까 우려한 것과 달리 사과와 배, 배추, 무 등 주요 과일과 채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차례상 비용도 2년 연속 내렸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물량이 풀리면서 장보기 비용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 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에서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2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500원) 적은 수준이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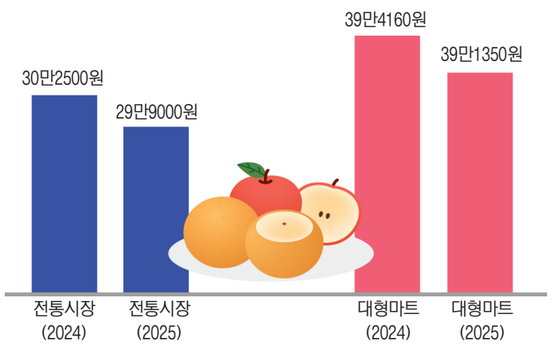
전통시장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2021년(8월 31일) 27만4500원, 2022년(8월 22일) 30만원, 2023년(9월 11일) 30만9000원, 지난해(8월 26일) 30만2500원, 올해(9월 12일) 29만9000원 등이다.

올해 비용은 지난 2021년 추석 이후 4년 만에 20만원대로 돌아왔다.

이는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하락했고 공급량이 회복된 채소류 가격이 안정된 영향이다.

사과와 배는 폭염과 폭우로 생육이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추석이 작년 추석(9월 17일)보다 3주가량 늦어 명절 출하량에는 문제가 없고 홍로(사과)와 원황(배) 품종뿐 아니라 다른 품종까지 더해져 선택지가 넓어졌다. 또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도 없다.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아진 샤인머스캣과 포도, 가을 대표 과일인 단감까지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늘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대형마트 추석차례상 물가 비교 (단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추석을 24일 앞둔 지난 11일 홍로 사과 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7110원으로, 지난해 추석 24일 전(8월 24일)의 2만7711원보다 601원 저렴하다.

원황 배 상품 10개 가격은 지난 11일 2만7049원으로, 작년 추석 24일 전의 3만3504원보다 19.3%(6455원) 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사과와 배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7%씩 늘 것으로 예상했다.

전통시장에서 품목별 가격을 보면 사과(3개)와 배 가격은 지난해 1만50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33.3%씩 내렸다.

시금치(1단)는 8000원에서 6000원으로 25.0%, 무(1개)는 4000원에서 2500원으로 37.50% 각각 내렸고 배추(1포기) 가격도 1만원에서 9000원으로 10.0% 하락했다.

반면 햅쌀과 가공식품류, 축·수산물류 가격은 올랐다.

햅쌀(2kg)은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상승했다. 송편(1kg)과 시루떡(3장)은 각각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20.0%, 조기(3마리)는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5.0% 각각 올랐다.

동태(1마리)와 돼지고기 육전용 앞다릿살(600g)은 각각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 달걀(10개)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20.0% 각각 상승했다.

대형마트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39만1350원으로 작년보다 0.7%(2810원) 떨어졌다고 밝혔다. 사과와 배 가격이 각각 27.0%와 25.8% 내렸다.

특히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할인을 적용한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28만~32만원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

물가정보는 "추석까지 3주가 남아 장보기 물가에는 태풍 발생 여부와 가을장마 등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행히 추석이 늦고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광주대 곡성서 농업·농촌현장학습

농협 전남본부는 광주대학교 간호학과와 함께 지난 12~13일 곡성에서 학생과 지도교수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 농업·농촌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장미 시설하우스에서 장미 수형관리를 위해 새 순을 제거하고, 하우스 시설 정비를 지원했으며, 전남본부가 중점 추진하는 '농심천심 운동' 확산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특히 이날 학생들은 '농심천심 운동 홍보 숏츠 대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팀별로 일손돕기와 1박 2일 농촌생활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전남본부는 젊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시각으로 제작된 숏츠를 활용해 농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촌에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구슬땀을 흘리며 참여해 준 광주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재능을 접목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GGM, 하반기 기술·일반직 27명 공채

오늘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하며 글로벌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하반기 기술직·일반직 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규모는 기술직 22명과 일반직 5명 등 모두 27명이다.

지난 3월 33명 선발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공채로 상반기 공채에서는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서접수는 15~29일이며 원서 제출 이후 30일 오후 5시까지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를 마쳐야 한다.

원서접수는 GGM 채용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이후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건강 검진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GGM 관계자는 "캐스퍼의 국내·외 판매 호조가 계속되고 GGM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가 쌓이면 향후 주·야간 2교대 가동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이번 공채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상생형 지역 인재를 선발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을 통해 광주 지역 학생들의 전통시장 체험교육에 활용될 온누리상품권 3000만원을 기부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 전통시장 현장학습 지원

학생 2300여명 대상…온누리상품권 3000만원 기부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을 통해 광주 지역 학생들의 전통시장 체험교육에 활용될 온누리상품권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광주 지역 초·중·고 학생 2300여명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체험학습과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이달 중 진행되는 현장학습에서 학생들은 직접 지역 상인을 만나고 전통시장을 경험하며, 올바른 경제관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재영 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이번 기부가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시에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금융기관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포스코, 2025임단협 투표 가결…72% 찬성

57년 무분규 이어가…17일 노사 조인식

포스코는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1.7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선거인수 8426명 중 814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71.76%(5848명), 반대 28.24%(2301명)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1만원 인상, 철강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원, WSD(World Steel Dynamics) 15년 연속 세계 최고 철강사 선정 기념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원,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지급, 현장 내 작업 중지권 사용 확대를 통한 안전조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이 교섭 결렬 없이 높은 찬성률로 가결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산업 둔화, 미국발 50% 관세 부과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강 경쟁력 회복과 안전한 작업장 구현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반복되던 교섭 결렬과 파업 찬반 투표 등 갈등 중심의 패턴을 벗어나 평화 교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포스코는 이번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면서 1968년 창사 이래 57년 무분규 전통을 이어갔다.

포스코는 오는 17일 이희근 사장과 김성호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1년 넘게 공전' 주월동지주택 공사 재개

정진욱 의원 중재…HUG 첫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사가 이달 중 재개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광주주월동지역주택조합 주용욱 조합장, 남양건설㈜ 정인수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이행 협약서 및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를 체결했다.

광주주월동지역주택조합은 광주 남구청사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 304호, 오피스텔 93호, 상가 109실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남양건설은 공사 재개를 위해 조합 측에 추가금 62억원을 요구했고, 조합은 부당 청구라며 맞섰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체결은 공사 중단으로 1년 3개월간 방치된 광주 남구청사 인근 주월동 지주택아파트의 본격적인 재시공을 의미한다"며 "현재 공정률 77%인 아파트가 오는 16일 또는 17일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9월께 완공될 예정이고, 283명의 조합원들은 꿈에 그리던 새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공이행 보증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HUG 역사상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라고 정 의원은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HUG가 조합의 시공이행 보증을 거부하면서 기존 관행대로 손해금 지급 방식을 선택해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면 아프트가 언제 완공될 지 모르고 조합원은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 지출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전략을 세운 다음 적극적인 중재와 HUG 설득을 통해 시공이행 보증의 실마리를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공보증이행 방식은 HUG의 원래 설립 취지에 가장 맞는 방식이지만, HUG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이번 주월동지주택아파트 사업에서 시공이행 약정체결이 이뤄짐으로써 최초 유일 사례로 기록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8월까지 중도금 추가대출에 대한 HUG 100% 보증 문제로 조합과 HUG, 대출금융기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을 때도 국토부장관과 HUG를 설득한 끝에 이번 시공이행 협약서 및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 체결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추가약정을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아 주월동지주택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KT 소액결제 문의 9만여건
황정아 의원 "축소·은폐 의혹"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 관련 고객 문의가 9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언론보도 등에 따른 소액결제 관련 키워드로 KT에 들어온 고객 문의는 9만2034건이다.

이는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전체 민원 접수(1만5044건)보다 약 6배 많은 수치다.

KT가 전날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악된 피해자는 278명, 결제 취소를 포함한 피해액은 약 1억70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접속 회선을 통한 ARS 인증으로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사례들을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빗발치는 고객 문의 수를 고려할 때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피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황 의원 측은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 소액결제 이용자 수와 이용 금액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KT는 지난 10일 "월별로 관리 중이라 정확한 현황을 즉시 추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로그기록과 요금이 모두 시스템상 남아있음에도 전체 소액결제 거래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는 KT의 의문스러운 태도가 결국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직접 소액결제 내역을 파악해 실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축소 은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소액결제 문제로 고객 문의가 증가했지만, 오늘은 전날과 비교해 줄고 있다"며 "고객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 고객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Lotto 6/45
로또 9 19 29 35 37 38

로또 1등 13명…당첨금 각 22억6000만원

제118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9, 19, 29, 35,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2억636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67명으로 각 293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21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34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7만7694명이다.

연합뉴스